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 성별에 따른 분석*

Relationships Between Toddler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and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Analyses Focusing on Toddler Gender

이 지 민**
강남구 구립 한티어린이집
Lee, Jee-Min
Hantee Daycare Center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Given the situation where research attention targeted at toddler group was relatively small,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toddler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and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Considering the previous findings suggesting that toddler age and gender could affect their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this study included toddler age (months) into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and administered these analyses for each toddler gender. Participants were 189 toddlers (91 male and 98 female, mean age of 30.16 months old) from 10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Toddlers'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and adjustment in daycare center were measured using the Toddler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Scale(Kim, 2011) and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Jewsuan, Luster, & Kostelink, 1992). Correlations analyses among toddler age, three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dimensions (emotion recognition/expression, emotion management, and emotional coping) and five adjustment indices (adjustment to routines, peer relationships, positive emotions, ego strength, and prosocial behaviors) revealed mostly similar relationship patterns bu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oddler age and four adjustment indices and between emotion recognition/exp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s. Nex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each of the five adjustment indices with the step 1 entering toddler age and step 2 entering three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Results suggest that three emotional regulation abilities significantly incremented explanation for the variance in each of the five adjustment indices. Emotion management, and emotional coping seemed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in predicting these adjustment indices, regardless of toddler gender.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were found only in the prediction of ego strength and prosocial behaviors. In the prediction of ego strength, only emotional coping was significant in male, but both emotional coping and emotion management were significant in female. Noticeably, emotion management abilities we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oddler ego strength. In the prediction of prosocial behaviors, all the three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were significant in female but only two (emotion recognition/expression, emotion management) were significant in male. Results were interpreted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주제어(Keywords) : 영아 정서조절능력(toddler emotion regulation ability), 영아 보육시설 적응(toddler adjustment to daycare center), 영아기(toddlerhood)

* 본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석사. 강남구 구립 한티어린이집(E-mail: hot_zammin@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 론

여성의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보육시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영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14) 조사에 따르면, 2006년 10%에 불과했던 0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014년 16%로 증가하였으며 만 1세와 만 2세도 각각 23%에서 70%, 42%에서 86%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2012년부터 실시된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는 영아의 수는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영아의 삶의 질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 정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되었다.

영아가 보육시설에 다닌다는 것은 보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발생한 환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환경에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 내 사람들(교사, 보육자, 다른 영아)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영아기의 사회·정서·인지적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분리와 새로운 환경 요구에의 부응은 영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도전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발달적 도전에 잘 대처하여 적응을 이루어낸다면 영아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이후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경험함은 물론 이후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만 4-5세 학령전기 아동들을 단기중단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학령전기 협동적이고 사교적이던 아동들은 유치원에 올라간 후 또래나 교사에게 수용된 반면 학령전기 반항적이고 공격적이던 아동들은 유치원에 올라간 후 또래나 교사에게 거부된 경향이 발견되었다(Ladd & Price, 1987). 유사하게 유치원에서의 적응 정도는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dd & Troop-Gordon, 2003; Troop-Gordon & Ladd, 2005). 발달 초기 적응 여부가 이후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영아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규명은 영아기 발달은 물론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초기 요인의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은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교사 특성 등의 시설 관련 변인뿐 아니라 아동 관련 변인이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민영, 손수민, 2009; 백경숙, 1996; Lieberman, 1993). 대표적으로 영아의 월령과 성별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 변인들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연구들은 영아의 월령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더 잘 적응하며(류경, 2000; 백경숙, 1996; 이용주, 2004), 여아가 남아보다 보육시설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장성덕, 2007; 허서옥, 전예화, 2001; 현온강, 태진, 2000). 보다 최근에는 정서조절능력이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아 개인 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자기조절의 한

측면으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의 정서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Kopp, 1982, 1989; Moore et al., 2009; Thompson, 1994),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집단생활 적응에 유용한 능력으로 제안되고 있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에 대한 언급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까지도 조절,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긍정적 정서 상태 증가 및 부정적 정서 상태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문제 상황의 긍정적 해결에도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에의 성공적 적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Masten과 Coatsworth(1998)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유능감이라 개념화하며 이러한 유능감 성취에 자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Masten과 Coatsworth는 영아기 발달 과업을 양육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애착관계 형성, 환경으로부터의 자기 분화, 순응, 및 자기조절로 보고 이러한 발달 과업에서의 유능감 획득에 정서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아동 정서조절능력과 행동 문제, 사회성,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주의력이 낮고, 행동조절에 서투르며,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내었다(Eisenberg, Losoya et al., 2001; Hart, Hofmann, Edelstein, & Keller, 1997).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사회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정서조절능력 정도가 높은 유아들은 사교성과 친사회성, 주도성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박선희, 2012). 또한 경험적 증거는 유아나 학령기 아동의 높은 정서조절능력이 이들의 보다 나은 유치원 혹은 학교 적응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세미, 2007; 김지은, 2005; 박성연, 강지훈,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Eisenberg, Fabes, Shepard et al., 1997; Eisenberg, Fabes, & Losoya, 1997; Eisenberg, Valiente et al., 2003; Goleman, 199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적응, 특히 규칙이 존재하는 집단 환경에서의 적응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조절능력의 환경 적응에의 영향에 대한 탐색이 2000년대 이후로부터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은 주로 유아기·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e.g., 강세미, 2007; 김지은, 2005; 박성연, 강지훈, 2005; 윤지은, 장영숙, 2011; 장소현, 김순옥, 2011; 조혜경, 2015). 영아를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시설적응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서조절능력이라는 개인 변인과 시설적응이라는 발달적, 임상적 중요성을 띤 현상과의 관계를 발달의 가장 초반기에 위치한 영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하는 것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의 조기 탐지와 탐지된 요인의 조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형성, 학업성취, 사회적 규칙 따르기가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요구되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기분화, 자기조

절, 순응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요구되는 영아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 과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조절능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띤 영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능력 과 시설적응 간 관계성 탐색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근간에 조명받기 시작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opp(1989), Shaffer와 Kipp(2014), Tronick(1989)이 있는데, Kopp(1989)에 따르면 영아는 3개월이 되면서부터 운동체계와 시각적 체계가 성숙하게 되어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을 외면하거나 다른 흥미로운 자극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식의 정서조절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생후 1년이 지나면서 사회, 인지, 정서 영역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고 2~3세에는 객체적-주체적 자기로서의 자기인식이 발달하게 되어 보다 본격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Shaffer와 Kipp(2014)도 영유아기를 인지 능력과 함께 정서 표현과 정서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로 보았고, 생후 첫 해 동안 영아는 다양한 정서반응을 획득하는 동시에 정서의 강도와 반응을 억제하거나 확대시키는 능력도 발달시켜 나간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Tronick(1989)은 영아의 정서적 특징과 정서적 소통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영아의 정서와 정서적 소통이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제안하면서, 영아가 사건의 특성이나 맥락에 맞는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양육자의 정서 표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 성취를 위해 정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영아가 자기에게 혹은 타인에게 향해진 조절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통제하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자기 위로, 자기 자극, 주의 전환과 같은 자신에게 시행된 조절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행동을 자기-지향적 조절행동(self-directed regulatory behaviors; Gianino & Tronick, 1988), 그리고 정서적 표현이나 소통을 통해 타인을 자신의 목표 성취에 이용하는 행동을 타인-지향적 조절행동(other-directed regulatory behaviors; Gianino & Tronick, 1988)이라 칭하며 영아가 이러한 정서조절행동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영아가 정서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를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키고 행동을 시작 혹은 유지시킬 수 있다는 Kopp, Shaffer와 Kipp, Tronick 등의 주장은 영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연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연구가 부족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영아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아는 언어적, 인지적으로 자신의 정서조절 상태를 보고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영아 정서조절능력 파악에 있어 주로 모의상황(simulated situation)

에서의 영아의 행동 변화나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에 의존했었다(Calkins & Johnson, 1998). 하지만 최근 들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관찰자 평정 도구가 개발되고 있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측정의 손쉬운 연구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영아의 능력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선행 연구들은 영아의 월령이 영아의 보육시설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류경, 2000; 백경숙, 1996; 이용주, 2002). 또한 Roberts(1999)는 학령전기 아동의 감정 사회화와 친사회적 또래 행동 및 자아강도 간 관계에서 아동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계 양상을 일부 관계에서 발견하였는데, 특히 Roberts는 감정사회화로 감정을 통제시키기, 분노 감정을 허용하지 않기, 울지 않도록 가르치기, 화가 났을 때 위로 제공하기, 형제·자매와의 싸움 처벌하기와 같은 부모 행동들에 집중하였다. 비록 Roberts의 연구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아동의 또래관계,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강도(이들 변인은 본 연구에서 보육시설적응의 차원으로 포함됨)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포함된 감정 사회화 행동들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서조절능력과 아동 환경 적응과의 관계에서 일부 성차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 회귀 분석 시 보육시설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아 월령을 하나의 독립적인 변인으로 포함시켰고, 특히 남아와 여아에 있어 정서조절특성과 보육시설적응 간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남아, 여아 각각에 실시하여 이들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만약 선행연구에서처럼 월령이 보육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월령의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을 통제하는 분석 전략은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 간 관계 양상을 보여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부족했던 우리의 지식기반을 넓히는데 공헌할 뿐 아니라 영아 보육시설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 여아에 있어 영아 월령 및 영아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과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남아, 여아에 있어 영아 월령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아 정서조절능력의 영아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에 채용 중인 만 1, 2세반 영아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 설문지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행동관찰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린이집 적응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63명의 영아 담임교사가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 정도를 평정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은 최소 15개월, 최대 35개월로 평균 30.16개월($SD=4.98$)이었다. 영아들의 남녀 성비는 남아 48.1%(91명), 여아 51.9%(98명)로 동등한 수준이었다. 남아의 평균 월령은 30.58개월($SD=4.82$), 여아의 평균 월령은 29.78개월($SD=5.09$)로, 남아와 여아 간 평균 월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_{187}=1.12, p>.05$). 남아와 여아의 정서조절능력 세 차원(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관리, 정서적대처)과 보육시설적응 다섯 차원(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친사회적행동)의 문항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남아-여아 문항평균 점수의 차이 검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는 남아보다 정서조절능력 중 자기정서인식/표현 점수($t_{187}=-2.54, p<.05$)와 정서관리 점수($t_{187}=-3.61, p<.01$)에서 그리고 보육시설적응 중 또래관계 점수($t_{187}=-3.92, p<.01$)와 친사회적행동 점수($t_{187}=-2.1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표 1> 남아, 여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차원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남아-여아 문항평균의 차이 검증 결과

| | | 남아($n=91$) | 여아($n=98$) | 차이검증 |
|--------------|-----------|--------------|--------------|-----------|
| | | $M(SD)$ | $M(SD)$ | t value |
| 영아정서조절 능력 | 자기정서인식/표현 | 3.63(.57) | 3.84(.54) | -2.54* |
| | 정서관리 | 2.87(.72) | 3.28(.83) | -3.61** |
| | 정서적대처 | 3.67(.75) | 3.62(.74) | .50 |
| 영아보육시설 적응 | 일과적응 | 3.72(.60) | 3.77(.68) | -.46 |
| | 또래관계 | 3.09(.65) | 3.48(.72) | -3.92** |
| | 긍정적감정 | 3.58(.65) | 3.77(.75) | -1.85 |
| | 자아강도 | 3.31(.88) | 3.49(.86) | -1.46 |
| | 친사회적행동 | 3.18(.77) | 3.42(.80) | -2.12* |

* $p<.05$, ** $p<.01$

수준을 나타내었다.

2. 연구도구

1) 영아 정서조절능력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김주영(2011)이 개발한 교사평정 영아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관리, 정서적대처의 세 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정서인식/표현은 영아가 자신의 내·외적요인에 의해 유발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을, 정서관리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나 의식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정서적대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대해 개인이 정서적 자극 혹은 촉진이라는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영아 정서조절능력 척도는 자기정서인식/표현 8문항, 정서관리 15문항, 정서적 대처 7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김주영(2011) 연구에서 자기정서인식/표현 .73, 정서관리 .89, 정서적 대처 .78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인식/표현 .62, 정서관리 .92, 정서적 대처 .82로 나타났다.

2) 영아 보육시설적응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은 Jewsuwan, Luster와 Kostelink(1993)가 개발한 유아원적응 질문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오종은과 박경자(2002)가 번안, 예비조사를 통해 만1, 2세 영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오종은과 박경자(2002)는 영아교사 및 영아발달전문가의 문항 평가와 직접 행동관찰 측정치를 통해 수정된 영아 원적응 질문지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아 원적응 질문지는 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일과적응(8문항), 또래관계(6문항), 긍정적감정(7문항), 자아강도(4문항), 친사회적행동(4문항)의 다섯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과적응은 영아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를 잘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또래관계는 영아가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긍정적감정은 어린이집에서 표현되는 영아의 긍정적 감정을, 자아강도는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주장적이며, 또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끈기를 보이는 행동을, 친사회적행동은 또래를 도와주고, 장난감을 나누며, 친구나 교사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전체 29문항 중 5

문항은 역채점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일과적응 .74, 또래관계 .70, 긍정적감정 .73, 자아강도 .75, 친사회적행동 .72로 모두 허용할만한(acceptable)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설문 완성을 위해 연구자가 국공립 어린이집 10곳을 방문, 만 1, 2세반 영아들의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교사들은 해당 학급 영아 부모들에게 연구 참가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에 동의한 영아들에 한해 교사 평정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총 206부의 설문이 완성되었고, 이 중 아동의 월령이 36개월 이상인 자료 15부와 빠뜨린 응답을 포함한 자료 2부를 제외한 총 18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처리를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영아 월령 및 영아 정서조절 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월령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아 정서조절능력 하위차원들이 보육시설 적응의 하위차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친사회적행동의 다섯 보육시설 적응차원 각각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영아월령을 2단계에서는 3개의 영아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관리, 정서적대처)을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시 영아 정서조절능력 차원들과 더불어 영아 월령도 포함시켰고, 각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남아, 여아에 대해 따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영아 월령 및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간 관계

영아 성별에 따른 월령 및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남아, 여아 각각에 대해 월령, 세 정서조절능력 차원(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관리, 정서적대처), 다섯 보육시설적응 차원(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친사회적행동)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는 월령과 보육시설적응 간 관계에서 서로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아의 경우 월령은 자아강도를 제외한 네 개의 보육시설적응 차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룬 반면 남아의 경우 월령은 그 어느 보육시설적응 차원과도 유의한 상관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여아의 경우 월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친사회적행동을 보인 반면 남아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아는, 남아와는 구별되게, 월령과 정서관리 간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여아의 경우 월령이 높을수록 정서관리능력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정서조절능력 차원과 보육시설적응 차원 간에는 자기정서인식/표현과 친사회적행동

〈표 2〉 남아, 여아의 월령 및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간 상관관계

| | 영아정서조절능력 | | | | 영아보육시설적응 | | | | |
|--------------|------------|---------------------|--------------|-----------------|--------------|------------|-----------------|------------|------------------|
| | 1= 영아월령 | 2= 자기정서 인식/표현 | 3= 정서관리 | 4= 정서적 대처 | 5= 일과적응 | 6= 또래관계 | 7= 긍정적 감정 | 8= 자아강도 | 9= 친사회적 행동 |
| 남아 (n=91) | 1 | -- | | | | | | | |
| | 2 | -.05 | -- | | | | | | |
| | 3 | .13 | -.03 | -- | | | | | |
| | 4 | -.11 | .40** | .24* | -- | | | | |
| | 5 | .09 | .15 | .33** | .51** | -- | | | |
| | 6 | .05 | .09 | .60** | .43** | .42** | -- | | |
| | 7 | -.01 | .04 | .43** | .54** | .69** | .58** | -- | |
| | 8 | .04 | .24* | .16 | .50** | .64** | .34** | .65** | -- |
| | 9 | .06 | .31** | .64** | .39** | .43** | .66** | .46** | .33** |
| 여아 (n=98) | 1 | -- | | | | | | | |
| | 2 | .13 | -- | | | | | | |
| | 3 | .32** | -.08 | -- | | | | | |
| | 4 | .05 | .25* | .25* | -- | | | | |
| | 5 | .34** | .17 | .47** | .57** | -- | | | |
| | 6 | .32** | .14 | .69** | .35** | .55** | -- | | |
| | 7 | .38** | .08 | .47** | .51** | .75** | .60** | -- | |
| | 8 | .16 | .21* | -.03 | .58** | .46** | .19 | .50** | -- |
| | 9 | .21* | .15 | .70** | .38** | .53** | .72** | .57** | .16 |

⁺p<.10 , *p<.05 , **p<.01

간 관계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관계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남, 여아 모두 자기정서인식/표현은 자아강도와, 정서관리는 자아강도를 제외한 4개의 보육시설적응 차원 모두와, 그리고 정서적 대처는 5개 보육시설적응 차원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자기정서인식/표현과 친사회적행동 간 관계에서는 남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r=.31, p<.01$) 여아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r=.15, p>.05$).

2. 성별에 따른 영아 정서조절능력의 영아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

월령의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이 영아 보육시설적응 차원들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보육시설적응 차원에 대해 월령을 단계1에,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을 단계2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남아, 여아 각각에 실시하였다. 앞서 상관분석결과(<표 2> 참조)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투입된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만큼 크지 않았고 회귀 분석 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한 결과 네 개 예측변인들의 VIF가 1.054~1.184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 만한 범위(VIF 지표가 10보다 큰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진단됨)에 있지 않아 다중회귀분석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의 단계 1에서 볼 수 있듯, 영아 월령은 여아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 결과와 같은 것으로, 월령은 남아에게서는 어느 보육시설적응 차원의 예측에도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여아에게서는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예측에 유의하였다. 단계 2에 세 개 정서조절능력차원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서조절능력차원들의 영아 보육시설적응 차원에 대한 설명 증분을 살펴보았을 때, 남, 여아 모두에서 정서조절능력차원들은 영아 보육시설적응 차원 예측에 유의한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다. 남아의 경우 적게는 26%(자아강도 예측에 있어 단계 2의 $\Delta R^2=.26, p<.01$), 많게는 52%(친사회적행동 예측에 있어 단계 2의 $\Delta R^2=.52, p<.01$)의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고, 여아의 경우 적게는 31%(긍정적감정 예측에 있어 단계 2의 $\Delta R^2=.31, p<.01$), 많게는 51%(친사회적행동 예측에 있어 단계 2의 $\Delta R^2=.51, p<.01$)의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다.

개별 정서조절능력 차원의 영아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의 예측에서는 남아-여아 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 반면 자아강도와 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서는 남아-여아 간 차이가 있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일과적응과 긍정적감정의 예측에서는 남, 여아 모두 정서적대처, 정서관리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의 예측에서는 남, 여아 모두 정서관리, 정서적대처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3〉 남, 여아의 보육시설적응에 대한 월령 및 정서조절능력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단계 1 β | 단계 2 β | 단계 1 ΔR^2 | 단계 2 ΔR^2 | 단계 1 F | 단계 2 F |
|---------------|-----------|-----------------|-----------------|----------------------|----------------------|-------------|-------------|
| 남아 ($n=91$) | | | | | | | |
| 일과적응 | 영아월령 | .09 | .12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4 | .01 | .31** | .68 | 10.03** |
| | 정서관리 | | .19* | | | | |
| 또래관계 | 영아월령 | .05 | .01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2 | .00 | .45** | .18 | 17.54** |
| | 정서관리 | | .53** | | | | |
| 긍정적 감정 | 영아월령 | -.01 | .01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17 | .00 | .41** | .00 | 14.91** |
| | 정서관리 | | .30** | | | | |
| 자아강도 | 영아월령 | .04 | .10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5 | .00 | .26** | .16 | 7.50** |
| | 정서관리 | | .03 | | | | |
| 친사회적 행동 | 영아월령 | .06 | .01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27** | .00 | .52** | .33 | 24.04** |
| | 정서관리 | | .61** | | | | |
| 여아($n=98$) | | | | | | | |
| 일과적응 | 영아월령 | .34** | .22**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4 | .12** | .37** | 12.45** | 22.15** |
| | 정서관리 | | .29** | | | | |
| 또래관계 | 영아월령 | .32** | .09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14 | .10** | .44** | 10.74** | 27.62** |
| | 정서관리 | | .64** | | | | |
| 긍정적 감정 | 영아월령 | .38** | .27**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4 | .14** | .31** | 16.00** | 19.04** |
| | 정서관리 | | .27** | | | | |
| 자아강도 | 영아월령 | .16 | .21*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00 | .03 | .39** | 2.67 | 16.38** |
| | 정서관리 | | -.25** | | | | |
| 친사회적 행동 | 영아월령 | .21** | -.04 | | | | |
| | 자기정서인식/표현 | | .16* | .04* | .51** | 4.32* | 28.71** |
| | 정서관리 | | .68** | | | | |
| | 정서적대처 | | .17* | | | | |

* $p<.05$, ** $p<.01$

반면, 남아, 여아 간 차이는 자아강도와 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서 나타났는데, 자아강도의 예측에서 남아의 경우 정서적 대처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beta=.48, p<.01$) 여아의 경우 정서적 대처($\beta=.64, p<.01$)와 정서관리($\beta=-.25, p<.01$)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아의 경우 정서관리는 자아강도 예측에 있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25, p<.01$), 이는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여아에 있어서만 보육시설에서의 낮은 자기주장·독립성·자신감과 성취를 위한 고집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회귀분석 결과는 남, 여아 모두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한 정서조절이 영아의 보육시설에서의 높은 자기주장 및 독립성, 자신감, 고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남-여아 차이는 친사회적행동 예측에서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 자기정서인식/표현과 정서관리가 보육시설에서의 영아의 친사회적행동 예측에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27, \beta=.61, \text{all } p<.01, \text{ respectively}$), 여아의 경우는 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관리, 정서적대처의 정서조절능력차원 모두가 보육시설에서의 영아의 친사회적행동 예측에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16, p<.05, \beta=.68, p<.01, \beta=.17, p<.05, \text{ respectively}$). 이는 내·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자기정서를 표현하는 능력과 바라는 결과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인지나 의식을 사용하는 정서관리능력이 남, 여아 모두에서 보육시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방법을 사용한 정서적대처능력은 여아에게서만 보육시설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에서 연구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아 발달군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영아의 월령과 성별이 영아의 보육시설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류경, 2000; 백경숙, 1996; 이용주, 2002; Roberts, 1999), 본 연구는 상관, 회귀 분석을 통한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 변인 간 관계성 파악 시 영아 월령을 변인으로 포함시켰고 이들 분석을 남아, 여아 각각에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남-여아 간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 양상에서의 차이도 함께 조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영아 월령 및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관계에서 남-여아 간 유사한 관계 양상이 발견되었다. 남, 여아 모두에서 정서적대처 능력은 일과적

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친사회적행동의 다섯 보육시설적응 차원 모두와, 정서관리 능력은 자아강도를 제외한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친사회적행동 보육시설적응 차원과, 자기정서인식/표현 능력은 자아강도 보육시설적응 차원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성별에 따른 보육시설적응 차원들과의 차별적 관계 양상은 주로 월령에서 나타났는데, 여아에서는 월령이 높을수록 정서관리 능력은 물론 보육시설에서의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친사회적행동이 높았다. 남아에서는 이들 변인들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령과 보육시설적응 간 일부 유의한 관계에 기초해, 월령의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영아 보육시설적응에의 고유한 영향력 파악을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남, 여아 각각에 실시하였다. 영아 월령을 1단계에,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을 2단계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 여아 모두에서 세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은 다섯 보육시설적응 차원 각각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다. 남아의 경우는 적게는 26%(자아강도의 예측에서) 많게는 52%(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서)의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고, 여아의 경우는 적게는 31%(긍정적감정의 예측에서) 많게는 51%(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서)의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이들의 보육시설적응 정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며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조절능력이 보육시설에서의 친사회적행동을 50% 이상, 또래관계를 44% 이상, 그 외 보육시설적응 차원들을 적어도 26% 이상 설명하고 있음은 영아 환경 적응에 있어 자기조절 기술이 필수적이라 주장한 Masten과 Coatsworth(1998)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영아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과의 관련성은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과 유치원/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e.g., 강세미, 2007; 김지은, 2005; 박성연, 강지훈, 2003; 윤지은, 장영숙, 2011; 장소현, 김순옥, 2011; 조혜경, 2015)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나, 일면 구별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서조절능력이 환경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줄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정서조절능력 차원으로 자기정서인식/표현, 자기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자기에게 향해진 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인식, 타인조절/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타인에게 향해진 조절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결과는 대체로 타인 관련한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이 자기 관련한 정서조절능력 차원들보다 유치원 혹은 학교 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해 Gianino와 Tronick(1988)과 Tronick(1989)은 영아가 자기-지향적 조절행동과 타인-지향적 조절행동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영아 정서조절능력으로 영아에 보다 특징적인 자기-지향적 정서조절능력들에 집중하였고(Kopp, 1989;

Shaffer & Klopp, 2014), 이는 자기-지향적 정서조절능력과 타인-지향적 정서조절능력 모두를 포함시킨 선행연구들과는 비교된다. 자기-지향적 정서조절능력만을 포함한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정서조절능력과 타인-지향적 정서조절능력 모두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만만큼 환경적응에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은 따라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또래관계 형성, 학업성취, 사회적 규칙 따르기가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요구되는 아동과는 달리 자기분화, 자기조절, 순응이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요구되는 영아에 있어, 영아의 자기-지향적 정서조절능력의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이 특히 친사회적행동과 또래관계 적응차원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하겠다. 이는 영아기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정서조절적 측면이 아동기, 청소년기 또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정서조절적 측면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월령과 다른 정서조절능력 차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정서조절능력의 보육시설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남, 여아 모두에서 정서적대처와 정서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과적응, 긍정적감정, 자아강도에서는 정서적대처능력이, 또래관계와 친사회적행동에서는 정서관리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자기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인 정서적대처가 부정적 정서의 조절을 핵심으로 요구하는 적응 영역들인 긍정적감정, 자아강도, 일과적응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인 정서관리가 관계 적응을 의미하는 친사회적행동과 또래관계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월령, 정서관리, 정서적대처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 자기정서인식/표현은, 영아 성별과 관계없이, 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일과적응, 또래관계, 긍정적감정, 자아강도의 예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정서인식/표현이 친사회적행동(이는 남아에서만 유의하였고 여아에서는 경향성이 나타났다)과 더불어 자아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던 상관분석 결과와 대비된다. 친사회적행동은 타인(교사와 또래)과 협동하고, 나누며, 이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영아의 경우, 친사회적행동은 다른 아이나 교사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이들을 위로하며, 이들과 놀잇감을 나누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되는데(Shaffer & Kipp, 2014), 이는 자기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행동으로 사료된다. 유사하게, 영아의 자신감, 독립심, 자기주장, 주도성을 의미하는 자아강도는 자기정서의 표현, 전달, 정서 강도의 조절을 요구하며, 이들 영역은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과 정서적대처능력에 해당한다. 또한 특성 상 이 두 정서조절능력 차원은 서로 중복되고 연관된 부분을 함유하는데, 이는 표 2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시사되고 있다(남아 자기정서인식/표현과 정서적대처 간 $r=.40$, $p<.01$; 여아 자기정서인식/표현과 정서적대처 간 $r=.24$, $p<.05$). 중복된 측면은 다중회귀분석 시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의 자아강도와 관련한 결과

차이를 야기했을 수 있다. 즉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에서 정서적대처능력과 중복되는 부분이 제거되었을 시 자기정서인식/표현의 나머지 요소는 자아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의 보육시설적응에의 영향에서 성별차이는 자아강도와 친사회적행동의 예측에서 나타났다. 먼저 자아강도의 예측에 있어 남아에서는 정서적대처능력만이 자아강도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여아에서는 정서적대처와 정서관리능력이 자아강도 예측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목할 만하게, 여아의 높은 정서적대처능력은 자아강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의 높은 정서관리능력은 자아강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아 간 성차는 친사회적행동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여아에서는 정서관리, 자기정서인식/표현, 정서적대처 능력 모두가 친사회적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낸 반면 남아에서는 정서관리, 자기정서인식/표현만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성역할 사회화와 남아·여아의 개인내적 성향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 성별에 따른 성역할 기대 및 훈육에서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남아, 여아의 관심에서의 차이가 남·여아 간 정서조절능력의 영향 범위와 그 효과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남아, 여아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부모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자녀 행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높았고(Bem, 1981, 1989; Bussey & Bandura, 1999; Roberts, 1999), 여아에게는 분노 반응을, 남아에게는 슬픔과 두려움 반응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는 특성을 보였다(Garside & Klimes-Dougan, 2002; Roberts, 1999; Zahn-Waxler, 2000). 또한 선행연구는 여아가 남아보다 관계적 사안에 보다 더 민감하고 관계적 목표에 더 쉽게 동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여아는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유준호, 오승아, 2011; 이는 본 연구의 또래관계와 친사회적행동 점수에서의 유의한 남녀 차이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표 1> 참조), 사교적 목표와 건설적 또래 반응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었으며(Murphy & Eisenberg, 2002), 부정적 정서 표현을 더 많이 통제하였다(Davis, 1995). 앞서 언급한 결과들과 개념들은 자아강도와 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영향에서의 남녀 차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신감, 독립심, 자기주장, 주도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아강도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에 더 가까운 행동으로, 교사나 또래 인정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동기화되어 있는 여아에게 일부 위협적으로 지각될 수 있다(예, 자아강도가 높은 행동이 공격적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순응하거나 자기를 자제하는 능력이 높은 여아일수록 교사나 또래의 수용 및 지지를 얻기 위해 자아강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정서관리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예측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크게 동기화된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친사회적행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많은 정서조절능력 차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 아동, 청소년 발달군에서 관찰되는 정서조절능력과 환경 적응과의 관계가 영아집단에서도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보육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영아 정서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가? 선행연구는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영아와의 관계에서 교사가 정서표현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 정서 표현을 자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교사의 정서신념이 긍정적일수록 유아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이정수, 이경옥, 2012; Cunningham, Kliewer, & Garner, 2009),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한영민, 2005; Eisenberg et al., 2001). 비록 결과가 유아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교사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지만, 이들 결과는 영아 집단에도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영아의 중요한 타자인 교사가 정서표현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영아에게 긍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한다면 이는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구조화된 접근을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윤경(2004)은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애착, 신뢰감, 안정감, 긍정적 자아감, 외부 탐색능력 발달을 위해 테라플레이(theraplay)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김주희(2007)는 실제 테라플레이가 유아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최은숙(2003)은 자기정서의 이해, 타인정서의 이해, 복합정서의 이해, 정서 바꾸기, 정서 숨기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인지행동적 기술훈련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물론 영아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요소의 일부 수정이 요구되지만, 이와 같은 구조화된 정서교육/훈련은 영아에게도 유용한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영아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부족했던 우리의 지식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며 영아 보육시설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어린이집 영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다소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대표성을 띠는 영아 표본을 가지고 연구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평정 방법을 사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영아 보육시설적응 구인을 측정하였다. 물론 교사가 이들 구인 측정을 위한 믿을 만한 관찰자이자 평정자이긴 하나 관찰자/평정자 오류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관찰자 평정 도구와 더불어 실제 행동 관찰 코딩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 간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보육시설적응과의 관계를 횡단적 설계를 통해 검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문제는 횡단 설계를 통해서보다 종단 설계를 통해 보다 잘 조명될 수 있다. 종단 설계를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이들의 보육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추후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영아의 보육시설적응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시사되었다. 다음 단계로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 프로그램의 영아 정서조절능력 및 보육시설적응에의 효과를 검증하는 효과성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세미 (2007). 만3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영, 손수민 (2009). 만2세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65-89.
- 김윤경 (2004). 치료놀이를 적용한 영아보육 모형. 아시아아동복지연구, 2, 17-37.
- 김주영 (2011).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 측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 (2007).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대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05). 5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7, 93-110.
- 류 경 (2000). 보육시설 초기 적응과정의 영아행동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12).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의 정서성, 정서표현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백경숙 (1996). 영유아의 중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종은, 박경자 (2002).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생활과학논문, 16, 1-9.
- 유준호, 오승아 (201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영아의 발달특성 연구. 아동교육, 20(3), 181-194.

- 육아정책연구소 (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지은, 장영숙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 종합연구*, 9(2), 94-115.
- 이용주 (2004). 어린이집 적응과정이 나타난 만1세 영아의 체험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3), 169-193.
- 이정수, 이경옥 (2012). 유아 및 교사변인이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연구*, 32(2), 287-306.
- 장성덕 (2007).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취업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소현, 김순옥 (2011).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4, 89-115.
- 조혜경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2003).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271-299.
- 한영민 (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서옥, 전예화 (2001).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간의 관계. *인제논문*, 16(1), 287-296.
- 현은강, 태진 (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 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38(3), 25-42.
- Bussey, K., &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gender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Psychological Review*, 106, 676-713.
-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A cognitive account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4-364.
- Bem, S. (1989). Genital knowledge and gender constancy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649-662.
- Calkins, S. D., & Johnson, M. C. (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379-395.
- Cunningham, J. N., Kliever, W., & Garner, P. W. (2009). Emotion socialization, child emotion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urban African American families: Differential associations across child gen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261-283.
- Davis, T.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 Psychology*, 31, 660-667.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 Losoya, S. (1997). Emotional responding: Regulation, soci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Murphy, B. C., Guthrie, I. K., Jones, S., Friedman, J., Poulin, R., & Maszk, P. (1997).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from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68, 642-664.
- Eisenberg, N., Losoya, S., Fabes, R. A., Guthrie, I. K., Reiser, M., Murphy, B., Shepard, S. A., Poulin, R., & Padgett, S. J. (2001). Parental socialization of children's dysregulated expression of emot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183-205.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r, M., et al. (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 3-19.
- Garside, R. B., & Klimes-Dougan, B. (2002). Socialization of discrete negative emotions: Gender differences and link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Sex Roles*, 47, 115-128.
- Gianino, A., & Tronick, E. Z. (1988). The mutual regulation model: The infant's self and interactive regulation coping and defense. In T. Field, P. McCabe, & N. Schneiderman (Eds.), *Stress and coping* (pp. 47-68). Hillsdale, NJ: Erlbaum.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rt, D., Hofmann, V., Edelstein, W., & Keller, M. (1997). The relation of childhood personality types to adolescent behavior and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celandic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95-205.
- Jewsuwan, R., Luster, T.,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ro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 1344-1367.
- Lieberman (1993). *The emotional life of the toddler*. New York: Free Press.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oore, G. A., Hill-Soderlund, Q. L., Propper, C. B., Calkins, S. D., Mills-Koonce, W. R., & Cox, M. J. (2009). Mother-infant vagal regulation in the face-to-face still-face paradigm is moderated by maternal sensitivity. *Child Development*, 80, 203-309.
- Murphy, B. C., & Eisenberg, N. (2002). An integrative examination of peer conflict: Children's reported goals, emotions and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1, 534-557.
- Roberts, W. L. (1999).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Rel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and competence in five sampl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1, 72-85.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haffer, D. R., & Kipp, K.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elmont, CA: Wadsworth.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ehavior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pp.25-52).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Troop-Gordon, W., & Ladd, G. W. (2005). Trajectories of peer victimization and perceptions of the self and schoolmates: Precursor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76, 1072-1091.
- Zahn-Waxler, C. (2000). The development of empathy, guilt, and internalization of distress: Implications for gender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R. Davidson (Ed.),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 Wisconsin symposium on emotion* (pp. 222-265). New York: Oxford.

원고 접수일 : 2015. 06. 30

수정 원고접수일 : 2015. 12. 21

게재 결정일 : 2015. 12. 28